

# 남북평화 위한 마음 대장경에 담았다

## 남북 공동조성 '평화대장경' 합천 해인사서 봉안법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3년 여의 준비와 5개월의 작업 끝에 공동조성한 평화대장경이 해인사와 판각지인 강화 선원사, 남해 화방사 등에 봉안됐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18일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기념 '평화대장경' 해인사장경판전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장경을 만든 선조는 후손의 번영을 기원했어 터인데,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돼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평화대장경 조성이 공존·상생 정신의 실천으로 이어져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대장경 조성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대장경 봉안 등 현대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발원문을 통해 "고려의 대몽항쟁이 초조·재조대장경을 만들어 냈다. 오늘 평화대장경 봉안을 통해 남북동일과 겨레의 아픔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평화대장경'은 남북이 공동으로 봉안하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와 민족 화합을 기원하고자 <금강경> 9판과 <반야심경> 1판으로 조성됐다. 판각은 남북분단현실을 고려해 중국에서 이뤄졌다. 북측 판각전문가가 수각(手刻)을 기본으로 조성된 평화대장경의 서체는 원본과 같은 구양순체를 적용했다.

평화대장경은 3년 여 준비와 5개월의 작업 끝에 조성된 인천시(시장 송영길)에서 <금강경>와 <반야심경> 각 2절을 후원하고 남해군(군수 정현태)에서 <금강경> 1절을 후원해 총 <금강경>(9장 17면) 4절과 <반야심경>(1장 1면) 2절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9월 북한 방문을 통해 평화대장경(<금강경> 1절,



조계종 총정 법전 스님(가운데)이 평화대장경 봉안을 위해 장경각으로 향하고 있다.

<반야심경>)을 북측에 전달해 봉안한 바 있다. 이날 해인사 봉안법회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유산 축전기간을 통해 봉행됐다.

해인사는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 참여한 기관장과 함께 팔만대장경보존회 후

원회원 가입식을 가져 보존회를 대중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대장경 지킴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정도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2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지원)에서는 10월 19일 '호스피스와 임상사례'를 주제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2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총회법회, 제2부 기념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 총회법회에는 협회총재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 협회장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협회상임이사 행복공동체 정도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흥영선 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협회총장인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하루 하루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삶 속에 호스피스인들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회법회에서 협회장 지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정도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사랑과 이해는 정도건설의 주춧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 곁에는 관세음보살의 분신인 봉사자님들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며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2주년 행사모습

사의 말을 전했다.

흥영선 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장(한국문화의학회 자문위원)은 "불교는 수천년 동안 한국인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최대의 종교이다. 이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운동이 싹 터 말없이 임종환자들의 선종을 도와 오다가, 2년 전에 협회를 창립한 이후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이제는 한국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홍 대학원장은 "이제는 한국은 물론 외국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이다. 한국 불교 호스피스협회가 큰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적 활동과 지원 노력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2주년 기념세미나는 흥영선 스님과 최진영 박사가 기조발제 했다.

조동섭 기자 · 이재진 부산지사장

## 7년째 지역불자 한마음

### 울산 월봉사, 어르신후원 위한 제7회 문화예술 축제 성료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축제가 울산 월봉사에서 열렸다.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10월 15일 울산광역시노인요양원 거주 어르신들 후원금 마련을 위한 제7회 월봉사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겨울 준비를 준비하는 이웃들은 늘고 있다"며 "자비심을 바탕으로한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 보살행으로 구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은 봉행사에서 "7년 전 주지 부임 이후 시작한 문화 예술 축제가 어느덧 7회를 맞았다. 불교문화와 월봉사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월봉사 대중의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과 덕의 상징인 포대화상을 봉안해 불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경료효친 사상을 신앙하기 위한 효자·효부상 시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울산파라미타 청소년 장학금도 전달됐다.

사찰음식전문가인 적문 스님의 사찰음

식 특강, 월봉사 달빛다도회의 전통 다도 시연이 펼쳐지는 한편, 노인복지요양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장터와 청소년 염주 만들기, 핸드폰 줄 만들기, 겨울 만들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는 '달이랑 별이랑 사랑이랑'을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와 함께 절정에 치달았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주지 오심 스님이 직접 법고를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목관5중주, 가수 주병선, 법능 스님, 범서고 파라미타 학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행사에는 안효대 국회의원, 김중훈 울산 동구청장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10월 15일 문화예술축제가 열린 울산 월봉사 모습

## 생활불교가 불교의 갈 길

###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

울산 월봉사는 신라 고승 성도 울산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천년을 수행정진의 터로 이어온 도량이지만 현재는 매년 축제가 열리는 열린 도량으로 탈바꿈해 있다. 월봉사는 10월 15일 열린 제7회 월봉사 문화예술 축제를 비롯해 사찰음식, 다도시연,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곳이다. 천년고찰과 도심사찰의 경계를 피안과 차안을 넘나들 듯 감로법문을 통해 불자들의 불심을 다져주는 수행도량이기도 하다.

7년 전 이곳 울산 월봉사 주지에 부임한 오심 스님(사진)의 이력은 화려하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간복지부 지도법사, 울산해양경찰서 경승실장, 파라미타 지회장 뿐만 아니라 월봉사 부속 룸비니 유치원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까지. 시쳇말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스님의 이력은 7년간 불교 발전과 지역포교를 위해 바빠 살아온 지난날을 대변해 주고 있다.

스님은 월봉사 주지 부임 후 첫해부터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각 지역 단체에서 큰 규모로 다양하고 많은 축제를 열고 있다 보니 웬만해서는 빛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월봉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열고자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봉사의 축제는 말사의 행사치고는 제법 규모가 있다. 무엇보다 매년 꾸준히 프로 그램에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성장세는 어느 불교계 단체 못지않은 수준이다.

오심 스님은 월봉사에 불교대학도 만들었다. 불자들이 배우고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불교는 수행이고 체험입니다. 직접 수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108배를 직접 해보지 않고는 수행이 힘든 것을 알 수 없지 않겠나"며 "불교를 자신의 삶에 접목해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심 스님은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도록 국가적인 인프라 구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스님은 월봉사가 위탁운영 중인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운영에 각별히 애정을 쏟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여산문학상 시상식... 소설 '빈들' 대상 영예

제2회 여산문학상 시상식이 10월 15일 부산불교회관건물 여어선원 8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여산문학상 대상은 김광수의 장편소설 <빈들>이 수상했다. <빈들>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 태어난 '김희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5·16 전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은 문장구사와 내용미를 높이 평가 받았다.

여산문학상 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정어 스님은 "자신의 존재나 목적지도 설정하지 못한 채 어딘가를 향하려는 사람에게 문학은 인생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등불이니 앞으로 부산의 문학인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양산 통도사 두 번째 '通하는 강연회'

### 11월 6일 오전 11시 설법전서 조용헌 원광대 교수 특강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에서 대중 특강 '通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통도사는 10월 2일 우승택 생태크연구 소장 초청 특강에 이어, 11월 6일 오전 11시 경내 설법전에서 조용헌 원광대 교수

를 초청해 두 번째 '通하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조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선조들은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를 특강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通하는 강연회'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법회이다. 앞으로 불법의 다양성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055)382-7182 조동섭 기자

##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글·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